

기고

신 우 철 완도군수



수목원 진흥 계획에 의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해야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과 육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수목원 진흥을 위한 국내외 환경 여건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 수목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5년간 수목원 확충과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03년 10월 8일 1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을 상위 목표로 수목원의 특성화, 전문화, 선진화 기반 조성을 설정하여 제4차(2019~2023)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목할 점은 제2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 중 제6부 우리나라 수목원의 미래에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제4차 수목원 진흥 기본 계획 또한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전, 활용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기후변화 등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를 근거로 남부권 지역에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 완도군과 경남 거제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 6월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제안서 심사 와 현장 심사를 통해 9월 중 조성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국비 1,000~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구 시설과 기후대별 온실, 관람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에 직결되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과히 천문학적인 숫자로 완도군과 거제시 두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 후보지인 완도수목원은 군외면 대문리 산100-1번지 일원의 2,033ha의 면적에 아열대 온실과 전문소원, 산림박물관, 탐방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91. 4. 10일 개원하여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국립수목원이다.

완도수목원은 연중 푸른 난대 숲과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어 매년 15만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

며, 난대림을 대표하는 동백나무, 황칠나무, 붉가시, 구실잣밤나무 등 전국 난대림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난대림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또한 난대림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위도 35° 이남에 위치하고 연 평균 14.5℃, 1월 평균 기온 2℃, 강수량 1,531mm 등 최적의 난대 기후 조건을 갖추고 한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쬐야 할 정도로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자생 식물 770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자생식물 중 완도호랑가시나무는 1979년 천리포수목원 고 민병갈 박사께서 완도 지역 수목채집 여행시 발견하여 국제식물학회에 보고된 수종으로 자연 상태에서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와 자연 교잡하여 만들어진 나무이다.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완도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가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완도만이 유일하다.

호랑가시나무는 추운 곳에서도

잘 견디는 나무이지만 감탕나무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완도 지역은 난대림이 분포하는데 최상의 기온과 최적의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려한 자연 환경과 함께 최대 난대림이라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의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도입수목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과 집중적인 지원으로 난대림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여 국민의 품으로 안겨주어야 한다.

수목 식재나 조림 사업에 있어 흔히 적지적수(適地適樹)라는 말을 쓴다. 임지생산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식생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지 환경과 토양 조건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난대수목원 선정 또한 적지적수(適地適樹)와 같다. 후보지인 완도수목원은 난대림의 성지이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단기간 내 조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 제2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 등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산림 정책의 근간인 기본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산림생태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임지 선정으로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社 說

‘광주형 일자리’ 차질 없어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중공업이 울산광역시에 울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공정 일자리'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가는 양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 지역 노동계는 최근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광주 빛그린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광주시가 추진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노동계는 또 광주에 이어 울산 등지에서 지역 상생 일자리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노동 존중'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는 전국 공장 중 2곳을 제외하고 모든 공장이 비정규직을 고용한 차별적 일자리의 대명사"라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존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울산형 일자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3300여원

이 투입되는 울산광역시와 현대모비스의 이달 말 투자유치 협약식 체결을 앞두고 열린 것이다. 연면적 6만2060㎡ 규모로 울산에 지어지는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에선 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와 함께 광주 지역 노동계는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 투자가 광주·전남의 빛그린산단(광주 광산구-전남 합평·407만㎡)을 친환경 자동차 전진기지로 조성하려는 광주광역시에 차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 노동계 한 인사는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구상에 전기차 부품 공장 유치가 필요 조건인데 울산이 선점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을 설립한 뒤 적기에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전장부품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자동차 전진기지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형 일자리로 인해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콜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집회시위 3·8선 '폴리스라인'

폴리스라인(Police Line)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2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최대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합법적이고 건전한 집회를 돕고자 한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시위를 규제

하고 차단하기 위한 설치물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을 구분해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며 시민들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선이다.

이 폴리스라인이 과격시위로 인해 무너진다면 곧 사고로 이어진다. 최근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평화적인 집회문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집회 참가자들에 의해서 경찰관 부상, 기물파손, 도로점거 등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을 지켜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 달성하고 집회시위로 발생

할 수 있는 혼잡한 상황으로부터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 및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폴리스라인은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선(線)인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도 배려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승훈 / 순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